

# 농협, 강원지역 폭우 피해 농가에 무이자 재해자금 등 지원 이성희 회장, 황성 피해 현장 찾아 농업인 위로...“피해 복구 총력 지원”



1, 2, 3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강원 황성군 소재 토마토 시설하우스 농장을 방문해 김명기 황성군수 등 관계자들과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김명기 황성군수, 김용욱 농협 강원지역본부장과 함께 지난 8월 14일 황성군 둔내면을 찾아 수해를 입은 토마토 스마트팜과 시설재배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황성지역에는 지난 8일부터 누적 강수량 5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져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가 발생했다. 농협중앙회는 여름철 집중호우 사전 대비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농작물·시설물 안전 점검과 농업인 호우피해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해왔다. 농협은 이번 폭우로 침수 등 피해를 본 강원지역 농가에 영농지원과 금융 및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전사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농업인 대상으로 무이자 재해자금 최대 1천억 원 한도 지원, 병해

충 방제, 농기계 무상 수리, 피해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영농 지원과 축전염병 예방과 침수 축산시설 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피해 농가를 위해 농협 상호 금융을 통해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대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납부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 지원도 함께 펼친다. 아울러 침수 농가 대상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과 피해농업인 의료지원을 위한 '농업인 행복 버스' 운영, 일손 돕기 및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성희 회장은 “폭우로 피해를 본 영농현장을 살피니 마음이 아프다”며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 활동을 빠르게 지원하고자 범농협 차원에서 총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❶



2



3

#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 녹색 경영 —

농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 확장

— 나눔 경영 —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원

— 청렴윤리 경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